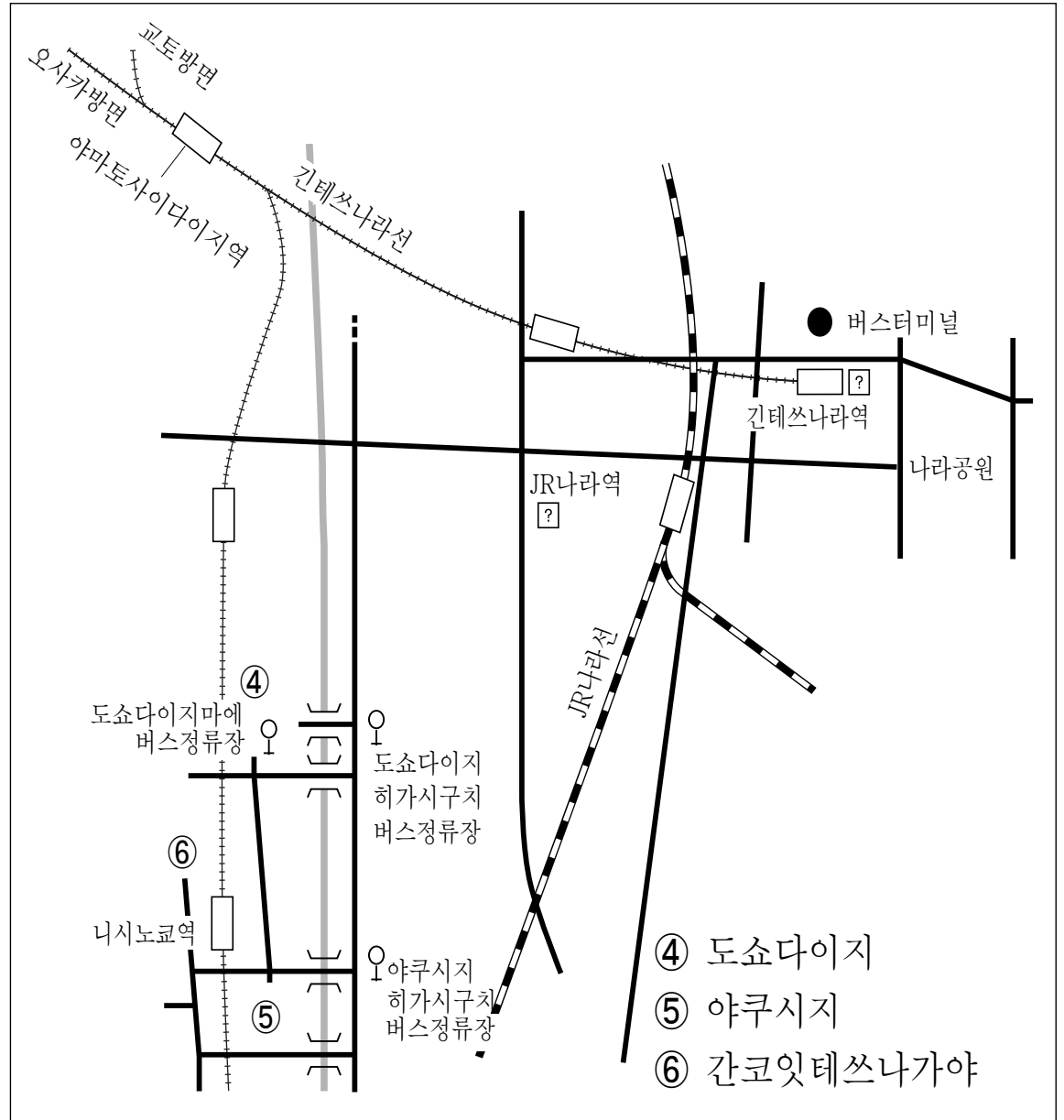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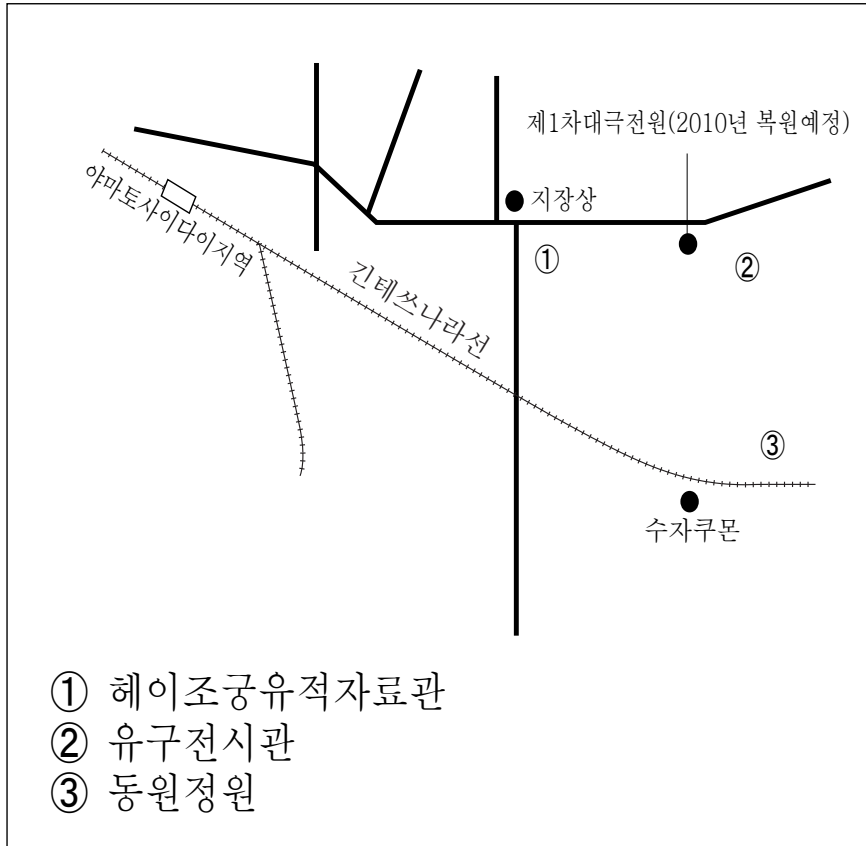


세계유산코스 - 헤이조공유적과 니시노쿄



세계유산코스 - 헤이조궁유적과 니시노쿄 (약 2 시간)

1) 헤이조궁유적(平城宮跡)

【교통편】 긴테쓰나라역(近鉄奈良駅)에서 전차를 타고 야마토사이다이지역(大和西大寺駅)에서 내린다. 도중에 신오미야역(新大宮駅)을 지나면 왼편으로 수자쿠몬(朱雀門 - 헤이조궁의 정문으로 1998년 복원)이 보인다.

- ① 헤이조궁유적자료관(平城宮遺跡資料館) [무료] - 역에서 10분. 헤이조궁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제 1차 대극전원모형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 ② 유구전시관(遺構展示館) [무료] 자료관에서 10분. 발굴된 헤이조궁유적의 일부를 볼 수 있다. ⇒ ③ 동원정원(東院庭園) [무료] 유구전시관에서 5분. 1998년 복원되었다.
※ 현재 대극전을 복원 중이다. (2010년 완공 예정)

2) 니시노쿄(西の京)

【교통편】 긴테쓰나라역 8번 버스승강장에서 63번, 70번 버스를 타고 도쇼다이지(唐招提寺)나 야쿠시지(藥師寺)정류장에서 하차. 또는 52, 88, 89, 97, 98번 버스를 타고 도쇼다이지히가시구치(唐招提寺東口) 또는 야쿠시지히가시구치(藥師寺東口)정류장에서 하차. 전차로 갈 경우, 야마토사이다이지역(大和西大寺駅)에서 가시하라진구마에·덴리행(橿原神宮前・天理行き) 보통열차로 갈아타고 두번째 니시노쿄역(西の京駅)에서 하차.

④ 도쇼다이지(唐招提寺) 절 [600엔] - 8세기 당나라에서 건너온 고승 간진이 창건한 절이다. 금당은 현재 해체수리중(2010년 완공 예정)이나 8세기에 세워진 헤이조궁의 건물을 옮겨 지은 강당 등 여러 사적을 볼 수 있다.

⑤ 야쿠시지(藥師寺) 절 [500엔] - 덴무천황이 황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해 아스카에 세웠으나 나라로 수도를 이전할 때(710년) 현재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창건 당시의 건물은 동탑만이 남았으나, 금당·강당·서탑 등 창건당시의 가람을 계속 재현 중이다. 법상종의 시조인 현장삼장을 모신 겐조산조인(玄奘三藏院)이 있다. 겐조산조인의 내부에는 일본의 저명화가인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가 30년에 걸쳐 제작한, 현장삼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여행한 행적을 묘사한 벽화가 있다. 단, 벽화는 공개하지 않을 때도 있다.

※ 겐조산조인의 공개시기에는 야쿠시지 경내 입장권과 공통으로 800엔.

⑥ 간코잇테쓰나가야(かんこ一徹長屋) [500엔] - 나라의 전통공예 실연과 함께 판매도 하고 있다. 아카하다 도자기, 잇토보리(一刀彫り - 나무조각공예), 고가쿠멘(古楽面 - 가면), 차센(茶筌 - 차도구), 나라칠기, 돈보다마(유리구슬공예)로 만든 악세사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1km = 걸어서 15분 정도